

# 모잠비크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1. 4.

|                    |    |
|--------------------|----|
| I. 일반개황 .....      | 1  |
| II. 경제동향 .....     | 2  |
| III. 정치·사회동향 ..... | 7  |
| IV. 국제신인도 .....    | 10 |
| V. 종합의견 .....      | 11 |

## I. 일반개황

|      |                        |         |                 |
|------|------------------------|---------|-----------------|
| 면적   | 799.4천 km <sup>2</sup> | GDP     | 96억 달러 (2010년)  |
| 인구   | 2,340만 명 (2010년)       | 1인당 GDP | 410달러 (2010년)   |
| 정치체제 | 대통령중심제                 | 통화단위    | Metical (MT)    |
| 대외정책 | 친서방 실리외교               | 환율(달러당) | 32.58 (2010년 말) |

- 모잠비크는 한반도의 3.6배에 달하는 국토와 2,34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아프리카 남동부 연안에 위치하여 탄자니아, 말라위, 잠비아, 짐바브웨,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접경하고 있음.
- 1인당 GDP가 410달러에 불과하고 대외 원조에 크게 의존하는 전형적인 저개발 국가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육성 노력, 각종 규제 완화, 민영화 정책 추진 등에 힘입어 주변국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천연가스와 티타늄, 금, 석탄, 보크사이트 등 광물자원이 풍부하여 개발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정치적으로는 집권여당인 해방전선의 장기집권체제 하에서 퀘부자 대통령의 연임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정치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보임.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 □ 양호한 경제성장 지속

- 2006~08년 농업, 운송업 및 통신업의 호조와 알루미늄과 천연가스 등 자원개발에 대한 FDI 증대, 정부의 적극적인 민영화 정책 추진 등에 힘입어 연간 7% 수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였음.
- 2009년에는 세계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농업의 호조와 국제원조 및 FDI 유입 확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의 추진 등으로 6.0%의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2010년에도 국제 원조와 FDI의 유입 지속 등으로 8.5%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1년에도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추진 등의 영향으로 7%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 재정수지 적자 규모 확대

- 재정수지는 공공 부문의 임금 인상, 사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출 증가로 적자 기조를 지속하고 있음. 재정지출 재원의 37%가 원조국의 지원으로 조달되고 있어 정부는 대외 원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세 수입의 비중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sup>e</sup> |
|------------|------|------|------|------|-------------------|
| 경제성장률      | 8.7  | 7.4  | 6.8  | 6.0  | 8.5               |
| 재정수지 / GDP | -1.3 | -2.9 | -2.5 | -5.3 | -6.0              |
| 소비자물가상승률   | 9.4  | 10.3 | 6.2  | 11.3 | 10.0              |

자료: IMF, EIU.

-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07~08년에 GDP의 2~3% 수준이었으나, 2009년에는 연료 보조금 확대, 국가 식료품 생산계획 (National Food Production Plan 2008-2011) 추진, 대통령 선거 실시 등으로 5.3%로 확대되었음.
- 2010년에는 원조 증대와 세수기반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침체에 따른 확대재정정책으로 재정 적자가 GDP의 6%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1년에도 5%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 □ 소비자물가 상승세 지속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최근 수년간 지속된 국제유가 및 식료품 가격 상승세와 국제 식량위기의 영향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09년에는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국제 유가 및 식료품 가격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무려 11.3%를 기록하였음.
- 2010년에는 양호한 농작물 작황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 및 식료품 가격의 상승, 정부의 연료 보조금 지급 축소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0%를 기록하였음.
- 2011년에는 국제 유가 및 식료품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2011년 1월에 발생한 홍수의 영향으로 농산물 작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소비자 물가는 6% 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가. 구조적 취약성

#### □ 열악한 기업환경

- World Bank에서 발표한 2011년 'Doing Business' 지수에 따르면 동국은 총 183개국 중 126위를 기록하여 전년(135위)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GDP 규모가 유사한 보츠와나(52위), 나미비아(69위), 잠비아(76위)에 비하면 낮은 수준임.

- 취약한 내수시장과 높은 거래비용, 과거 공산정권 하에서 비롯된 관료 제도 및 부정부패, 지적재산권 보호 장치 미비 등이 열악한 기업환경의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음.

## 나. 성장 잠재력

### □ 균형 잡힌 경제구조

- 경제구조상 농업이나 에너지 산업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는 아프리카의 주변 국가와는 달리 농업, 제조업, 수산업, 관광업 등 다양한 산업의 GDP 기여도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 2009년 기준으로 서비스업이 GDP에서 가장 큰 비중(45.3%)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30.6%), 농·수산업(24.0%)이 뒤를 잇고 있음. 한편, 노동인구의 약 80%가 종사하고 있는 농업은 여전히 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음.

### □ 풍부한 광물자원 보유

- 모잠비크는 광물자원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티타늄, 금, 석탄, 보크사이트 등이 채굴되고 있으며, 철, 우라늄, 코발트, 니켈, 구리 등도 채굴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광업 부문은 외국인투자가 가장 집중되고 있는 분야로 마니카(Manica) 지방의 금광 개발 프로젝트가 2012년 생산 개시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고, 철광석, 석탄 등의 대형 프로젝트 등도 예정되어 있어 향후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됨.

### □ 천연가스 개발 잠재력 풍부

- 천연가스는 상용화가 가능한 규모의 매장량이 확인되어, Norsk Hydro(노르웨이), Anadarko Petroleum(미국), ENI(이태리), Petronas(말레이시아) 등 세계 주요 석유업체들이 해역에서 시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천연가스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수출하거나, 국내 산업단지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수력발전 개발 가능성도 풍부

- 아프리카 대륙에서 네 번째로 긴 강인 잠베지(Zambezia) 강이 모잠비크를 통해 인도양으로 흐르고 있어 수력발전 부문의 개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현재 국내 전력 수요의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는 카호라 바싸(Cahora Bassa) 댐도 잠베지 강에 위치하고 있으며, 향후 잠베지 강 개발을 통해 10,000 MW 이상의 발전능력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다. 정책성과

□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추진 활발

- 정부는 최근 수년간 경제 발전을 목표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Mega-projects)를 추진하고 있음. 2000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13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하여 Mozal 알루미늄 제련소를 Maputo 인근 지역에 설립하였으며, 2004년에는 Saol 파이프라인(13억 달러)을 구축하였음.
- Benga 석탄 개발사업(13억 달러), Moatize 석탄 개발사업(12억 달러) 등 대규모 자원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됨.
- Moma 티타늄 확장개발사업이 2012년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주요 수출품목인 티타늄의 생산·수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경제개발정책 및 개혁정책 추진

- 정부는 경제·사회 개발계획인 ‘Programa Quinquenal do Governo Para 2010-14’를 실시하여 빈곤 퇴치, 사회 개발, 주요 산업(농업, 수산업, 광업, 관광업, 교통) 육성을 통한 경제 개발을 도모하고 있음.
- 재원의 대부분을 원조로 조달하고 있어 계획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임.
- 정부는 IMF와의 합의 하에 ‘Policy Support Instrument (PSI)’를 통해

세수 확대 및 채무 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기득권층의 반발로 개혁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 3. 대외거래

#### □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적자기조 지속

- 상품수지와 경상수지는 알루미늄, 천연가스의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원유와 식료품의 국제 가격 상승세의 영향으로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 2009년에는 세계 경기 침체로 알루미늄 등 주요 수출품의 국제 가격이 하락하여 상품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적자 규모는 GDP 대비 11.7%를 기록하였음.
- 2010년에는 대규모 석탄 광산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자본재 및 원자재 수입이 확대되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11.9%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1년에도 11%대로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 구 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sup>f</sup> |
|-----------------|-------|-------|--------|--------|-------------------|
| 경 상 수 지         | -773  | -785  | -1,180 | -1,171 | -1,140            |
| 경 상 수 지 / GDP   | -10.9 | -9.8  | -12.0  | -11.7  | -11.9             |
| 상 품 수 지         | -268  | -399  | -990   | -1,391 | -936              |
| 수 출             | 2,381 | 2,412 | 2,653  | 1,853  | 2,699             |
| 수 입             | 2,649 | 2,811 | 3,643  | 3,243  | 3,635             |
| 외 환 보 유 액       | 1,156 | 1,445 | 1,578  | 2,099  | 2,159             |
| 총 외 채 잔 액       | 2,931 | 3,012 | 3,432  | 4,106  | 4,922             |
| 총 외 채 잔 액 / GDP | 41.3  | 42.4  | 48.3   | 57.8   | 69.3              |
| D S R           | -     | 38.3  | 17.9   | 21.4   | 20.1              |

자료: IMF, EIU.

## □ 외환보유액 및 외채잔액 증가

- 외환보유액은 자원개발, 운송, 통신, 관광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외국인투자 유입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외환보유액은 2002년 말 12억 달러에서 2010년 말에는 22억 달러로 거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되었음.
- HIPC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 MDRI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등으로 대규모 외채를 탕감 받아 외채 상황이 개선되었으나, 최근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외채잔액이 증가하고 있음.
  - 외채잔액은 외채탕감으로 2005년 45억 달러(GDP의 68.3%)에서 2008년 31억 달러(GDP의 42.4%)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49억 달러(GDP의 69.3%)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였음.
- D.S.R.이 최근 5% 이하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단기간 내에 대외 지급능력이 악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Ⅲ. 정치·사회동향

### 1. 정치안정

#### □ 집권여당인 해방전선의 장기집권 지속

- 1975년에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이후 집권여당인 해방전선(Frelimo)은 초대 대통령인 사모라 마셀(Samora Machel)로부터 현 대통령인 아르만도 궤부자(Armando Guebuza)까지 모든 선거에서 승리하며 장기집권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2009년에 다섯 번째로 시행된 민주 선거에서도 해방전선이 75%의 지지율로 총 250개 의석 중 191석을 차지하였음.
- 민주선거의 정착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정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모잠비크는 아프리카의 민주화 및 시장경제개혁의 시범국가로 부상하고 있음.



## □ 케부자 대통령의 연임 성공

- 2004년에 집권한 케부자 대통령은 강력한 경제개혁정책을 추진하여 재임 기간에 연 10%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으며, 2009년에 실시된 대선에서도 국민의 높은 지지도와 야당 분열 등에 힘입어 압도적인 지지율(75%)로 연임에 성공하였음.
- 케부자 대통령은 재취임 이후에도 국정 전반에 걸쳐 권력을 공고히 하여 정치 안정과 경제성장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임.

##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 극심한 빈부 격차

- 모잠비크는 1인당 GDP가 410달러로 세계 최빈국의 하나이며, 빈부 격차가 매우 큼.
- 최근 정부가 빈곤감축 정책의 일환으로 인력 육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총 인구의 약 8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극심한 소득 격차의 해소가 핵심 과제로 남아있음.

### □ 열악한 생활 환경

- UNDP가 발표한 2010년 인간개발지수에 따르면 동국은 169개국 중 165위를 기록하여 최하위 수준임.
- 에이즈의 급속한 확산으로 2010년을 기준으로 한 평균수명은 48.4세에 불과하며, 성인 식자율도 44%로 생활 및 교육 인프라가 매우 열악함.
- 국토 중심부에 위치한 이남바느주 지방에서는 계속된 가뭄으로 4.6만명 이상이 기아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 고물가에 항의하는 시위 발생

- 2008년 2월에는 수도 마푸토(Maputo)의 빈민지역에서 대중교통 요금의 50% 인상에 대한 반대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정부의

무력 사용으로 100명 이상이 부상하고 인근 상가가 약탈당하는 등 폭동이 발생하였음.

- 2010년 8월에는 마푸토에서 수천 명의 시민이 고물가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최소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식료품 및 원자재의 국제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 고물가로 인한 소요사태 재발 가능성이 잠재적 불안요소로 남아있음.

#### □ 마약 밀수 등과 관련된 조직범죄의 우려

- 마약·총기 밀수, 차량 절도 등 범죄조직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조직이 정부 고위 인사들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2001년에 정부가 돈 세탁 방지 법안을 발효하기도 하였으나, 가시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하였음.
- 동국은 남아공, 아시아, 유럽으로 유입되는 마약의 주요 교역국으로 인식되고 있음.

### 3. 국제관계

#### □ 국제사회와의 협력관계 강화

- 1975년 독립 이후 구소련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1980년대 후반 소련의 공산체제가 붕괴되면서 미국, 일본 및 서유럽 국가와의 관계 강화에 주력해 왔음.
- 2000년대에 들어서는 남아프리카경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의 주요 일원으로 활동하며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왔으며, 최근에는 중국이 주요 투자국이자 교역국으로 부상하고 있음.

#### □ 주변국가와도 긴밀한 관계 유지

- 인접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과는 교역, 투자, 관광, 이민 등 전 분야에

걸쳐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앙골라, 짐바브웨와도 정치적인 유대관계를 지속하고 있음.

- 말라위와는 모잠비크의 나칼라(Nacala)항과 말라위 내륙을 잇는 Nacala Corridor 도로 개보수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 I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 외채에 대한 의존은 지속될 전망

- HIPC Initiative 및 MDRI를 통한 대규모 외채탕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빈약한 세수기반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당분간 공공 개혁 및 대규모 프로젝트 등에 대한 재정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외채에 대한 의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 OECD 회원국 ECA, IMF 및 세계은행에 대한 양호한 외채상환 태도

- OECD 회원국 ECA의 대 모잠비크 지원현황 (OECD, 2010년 6월말 기준)

·단기: 총지원잔액 7.7백만 달러 (연체금액 없음)

·중장기: 총지원잔액 3.1억 달러 (연체금액 7.1백만 달러, 연체율 2.3%)

- IMF나 세계은행에 대한 연체현황은 없음.

##### 2. 국제시장평가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 평가기관  | 최근 평가 등급       | 종전 평가 등급       |
|-------|----------------|----------------|
| OECD  | 6등급 (2010.10.) | 6등급 (2009.10.) |
| S&P   | B+ (2007.12.)  | A (2006. 4.)   |
| Fitch | B (2003. 7.)   | -              |

###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93년 8월 11일 (북한과는 1975. 6. 25)

□ 주요협정: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2010)

####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 우리나라와의 2010년 교역규모는 약 4,100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 수출은 합성수지, 농약및의약품,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3,500만 달러, 수입은 동제품, 합금철선철 및 고철 등을 중심으로 600만 달러를 기록.

○ 해외직접투자(2010년 12월 말 누계, 총투자 기준): 없음

<표 4> 한·모잠비크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     | 2008 | 2009 | 2010 | 주요품목               |
|-----|------|------|------|--------------------|
| 수 출 | 38   | 35   | 35   | 합성수지, 농약및의약품, 자동차  |
| 수 입 | 2    | 5    | 6    | 동제품, 곡실류, 합금철선철및고철 |
| 합 계 | 40   | 40   | 41   | -                  |

자료: 한국무역협회.

### V. 종합 의견

○ 모잠비크는 1인당 GDP 기준으로 세계 최빈국의 하나이나, 농업, 운송업 및 통신업의 호조, 자원개발 분야에 대한 FDI 증대, 개혁정책 추진 등으로 주변국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해 왔음.

○ 세계 경기 침체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모잠비크 경제는 2010년에 8.3%의 성장률을 보이며 빠른 회복력을 보였으며, 2011년에도 국제 원조와 천연자원 및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입이 지속되어 7%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2008년과 2010년에 물가상승에 반발한 소요가 발생하는 등 물가상승이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2011년에도 식료품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6%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해방전선이 오랜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장기집권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으나, 정부의 부정부패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퀘부자 대통령의 강경노선에 대한 소외 계층의 불만이 잠재적 불안요소로 남아있음.

조사역 이현정 (☎02-3779-5724)  
E-mail: [lhj0316@koreaexim.go.kr](mailto:lhj0316@koreaexim.go.kr)